

漢方 療法과 그 藥物

朴 勝 九

대한 한의사 협회

Oriental Therapy and Remedies

Seung KOO PARK

Korean Association of Oriental Medicine, Seoul, Korea

서 론

한약의 현대화와 과학화를 부르짖고 또한 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며 절실히 요청되는 바이나 한약은 어디까지나 한의학에 의거한 토대 위에서 현대화되어야 할 것이며 그 科學化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따라서 현대학문이나 과학적인 영역에서 한의약이 흡수되며 연구개발하는 방법은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문제이라고 하겠다.

근래에 한약수요에 있어 그 安全性이라든지 또는 長久한 경험이 集積되어 민족의학으로서 체계화를 이루어 왔으며 그 처방에 있어서도 종합적인 약효능의 深奧한 점과 일박적으로 약물에 中毒이나 危害가 거의 없다고 하겠으며 또한 믿어 왔던 것이다.

그러나 한의약개발은 시대적인 요구이며 우리의 사명임을 切感하여야 하겠다.

處方構成에 있어 이론이 복잡하고 약의 効能이 多樣하고 응용에도 難澁하다 하겠으나 病의 部位와 病의 症狀과 그 虛實에 의하여 處方名 또는 처방이 구성되어 證明하여 온것은 알아야 할 것이다.

한방 요법

대저 한방요법이라는 것을 현대의 사고로 말한다면 太陽界에 地球의 公轉과 自轉 그 運行法則에 의하여 時空의 반응으로 나타나고 있는 氣候變化를 陰과 陽의 두 가지 개념으로 관찰하는 범주로 삼아 위치 성격 작용 循環反復 등...을 모두 歸納시키어 그 時空에 존재하고 있는 萬有特質의 감안하는 基本尺度를 마련하여 왔다.

이러한 원리로 서술된 것이 즉 한의학의 原典인 素

向과 靈樞라 하겠다.

이러한 관계로 한방요법은 이 원칙에 입각하여 人間生命體에 違和된 질환의 치료나 또는 생약의 응용에서도 이 같은 개념 및 사고방법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현실에 있어 비록 한개 한개의 과학적증명은 이룩되고 있지는 못하지만 수천년의 인간자체내에 집적된 경험 또는 그 집적된 경험을 토대로하여 발전한 한의학의 요법과 약물은 20세기인 현시점에서 더욱 그 探索의 魅力을 풍기고 있는 바이다.

이상과 같은 원칙밑에서 한의학의 진료하는 證例들 들어 약물사용의 基準을 설명하고자 한다.

약 물 론

1. 頭痛에 대한 요법과 그 약물

첫째 두통의 부위를 감별한다.

後頭痛은 經絡의으로 太陽經에 속하는 太陽頭痛이고 前頭痛은 陽明經에 속하는 少陽頭痛이고 三陰의 經絡은 頭部를 上入한 直계가 없어 三陰經에 속하는 例가 稀少하나 前項頭痛과 無熱頭痛은 大陰, 少陰, 厥陰으로 나누어 말한다.

이 部位에 陰痛症이 나타나고 있으나 外感性인가를 原因의으로 구분하여야 하고 가령 外感性일 경우에는 또 風寒暑濕燥의 外界의 감염 원인을 살펴야하고 公傷性일 경우에는 氣, 血, 水毒(痰), 神經性(七情인 喜怒憂思驚恐)의 過用 食滯中毒등을 症脈의으로 原因을 探索한다.

가령 惡寒과 發熱을 수반하면서 體溫이 상승하고 頭痛하는 상태가 간헐이 없이 지속되면서 맥박이 浮數浮緊 浮緩하고 鼻塞 鼻鳴하며 聲重聲亮 하다면 이것을 外感性으로 진단하되 몸에 땀이 나면 傷風表虛로 보고 땀

이 없으면 傷寒表實로 진단한다.

表虛일 때에는 桂枝와 白芍藥을 사용하여 衛氣와 營血을 調和케 하고 甘草를 配合하여 胃液을 保存케 하고 生薑과 大棗를 加하여 體液을 순환케 하며 營衛의 調和를 協助해 준다.

여기에 땀이 나는 것을 한의학적인 思考로 볼 때 衛氣의 體溫調節機能이 違和되어 營血의 滲出로 보기 때문에 桂枝의 味는 辛하고 氣는 溫한 作用을 구사하여 조절기능을 回復케 하고 芍藥의 味는 酸하고 氣는 涼한 作用을 구사하여 營血의 삼출을 收斂케 하고 營과 衛를 調和한다. 生薑의 味辛, 氣溫은 風邪의 發산을 協助하고 大棗와 甘草의 甘味는 脾胃를 보호하여 體內的 津液을 過度하게 소모 못하도록 하는 작용이 있다고 한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와같은 桂枝湯을 복용하고도 表虛한 것을 더 돕기 위하여 古法에는 미음 한공기를 복용 후 마시도록 하여 藥力을 보조토록 하고 있다.

이와같은 경우에는 頭痛을 專治하는 약물을 사용하지 않아도 太陽位의 表虛한 것만 치유되면 頭痛은 自然消失되는 것이다.

만약 땀이 없는 表實한 狀態일 때에는 桂枝湯의 藥物 중에서 芍藥 大棗 生薑을 除하고 麻黃과 杏仁을 그리고 桂枝의 量은 3분의 1, 甘草의 量은 절반으로 줄이고 사용한다.

麻黃은 利水作用도 있지만 味辛, 氣溫한 중에 氣가 薄하기 때문에 皮膚로 走入하여 強發汗의 作用이 있고 杏仁은 味가 苦辛하여 降氣하는 作用이 있어 潤下하여 涎液을 止息시킨다.

桂枝와 甘草는 역시 營衛를 調和케 하며 일면으로는 麻黃의 強力發汗을 減除하고 있다.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동일한 外感性 頭痛이지만 病든 사람에 있어 나타나고 있는 證의 虛와 實을 基本으로 하여 藥물사용에 요법을 결정하고 있다.

2. 證治例

頭痛患者의 證이 惡寒과 發熱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體溫의 上昇도 나타나지 않으면서 그 痛疾이 간헐적이었고 식욕이 감퇴하며 피로감과 眩暈이 자주 있으며 맥박은 浮沈無力하거나 或弦細하다면 이것을 內傷性으로 진단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氣虛인가 血虛인가 또는 氣血兩虛인가 혹은 體內的 水毒(담) 上衝인가 七情所因인가의 등등을 구분하여 진단한다.

가령 아침과 오전에 두통이 더 심하고 항상 피로감을 느끼는든지 때로는 땀이 나고 四肢가 노곤하면서 잠이 들면 일어날 기분이 없으며 맥박은 洪大하고 또는 微細

하면서 無力하다면 이는 氣虛頭痛으로 診斷한다.

氣란 것은 각 장기조직의 生活力을 의미한다.

그러나 한의학에서는 胃氣에 중심을 두고 말한다. 先哲들은 피부를 훈훈하게 하고 體內를 充實하게 하며 毛髮을 윤택하게 하는 작용을 氣라고 한 바 있다.

즉 이러한 氣의 작용이 虛弱하여 특히 두통을 유발한 것을 한의학에서 氣虛頭痛이라 한다.

이러한 경우에 藥물사용의 치료기준은 氣를 보충하여 주는데 중점을 둔다.

즉 代表的의 處方을 든다면 補中益氣湯이라 하겠다. 이 탕의 藥물은 人蔘·黃芪·甘草·當歸身·白朮·陳皮·柴胡·升麻이다.

여기에 補中이란 中은 곧 脾胃를 뜻한다. 各臟腑와 肢體의 活動은 氣를 脾胃에서 받는다는 思考이다.

頭는 모든 陽이 회합한 곳인데 淸陽이 升하지 못하고 濁氣가 上逆하면 頭痛症이 야기한다.

단 그 痛症은 間헐적으로 發作하여 外感性頭痛症의 間헐이 없는 것과는 같지 않다. 가령 脾胃가 虛하면 一身의 氣를 주관하는 肺가 먼저 그 영향을 받는다.

때문에 黃芪를 사용하여 肺合皮毛인 皮膚子理를 堅固케 하고 氣虛하면 호흡이 좀 가빠지는고로 人蔘을 사용하여 胃氣를 補하고 氣가 虛하면 虛熱이 상승하기 때문에 甘草를 사용하여 火를 瀉한다.

白朮은 甘苦溫한 氣味로서 健脾作用이 있고 또는 腰臍間의 血分을 有利케 하고 人蔘으로 陽氣가 旺盛하게 되면 血分이 產生하므로 當歸를 사용하여 調和케 하고 中氣가 虛弱하면 胃內的 酸과 氣가스가 조절이 안되므로 陳皮를 사용케 하였으며 淸陽이 相合하지 못하므로 少量의 升麻柴胡로 人蔘·黃芪의 藥力을 보조하여 上昇케 한다.

이런 경우의 升麻·柴胡의 사용목적은 오로지 人蔘·黃芪의 藥力을 全身에 行使하여 잘 調節토하는데 있다.

그러나 氣虛한 반응이 頭痛에만 있다면 頭痛에 사용하는 즉 頭痛藥物을 加入하는 것이 좋다.

한의학에서 頭痛에 사용하는 藥물은 川芎(太陽)·白芷(陽明)·細辛(少陰)·柴胡(少陽)·蒼朮(太陰)·吳茱萸(厥陰)를 들수 있으며 腦痛에는 藥本을 쓴다.

이 藥물을 引經藥이라고도 한다. 예를들면 氣虛한 頭痛에 補中益氣湯을 쓰되 그 아픈 부위에 따라 引經藥物을 加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런 경우 보통이면 蔓荊子를 가하지만 통증이 심하면 川芎를 가하고 腦痛하면 藥本과 細辛을 가한다.

蔓荊子도 두통의 常用藥이지만 胃弱한 者는 分量을 少하게 하거나 혹은 가하지 아니한다.

대개 한방요법의 藥劑에 脾·胃·腸에 관계된 것에는 生薑 大棗를 가하는 것이 통례이다.

外感性인 感氣藥에도 흔히 生薑, 대조를 加入하는 예가 많은데 감기약은 땀 내는 것을 위주로 하는고로 과도하게 發汗이되면 위에 장애를 주기 때문에 生薑과 대조를 加入한다고 하겠다.

결 론

한의학에서의 요법과 藥물사용의 證例를 대강 말하였으나 그저 막연한 經驗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체계적으로 이러한 기초학리의 체계하에서 藥물의 氣味작용을 구분하고 그 藥리의 작용이 相合·相反·相惡·相

忌·相畏함을 가려서 인체에 미치는 반응의 補와 瀉와 또는 毒劇性有無를 고찰하여 한개 한개의 처방을 구성해서 시도하였으며 藥물의 사용에 있어도 單味의 사용보다 複合劑인 것이 더 유효함을 느끼었으며 複合劑를 사용함에 있어도 질병의 主證과 目標를 대상으로 하여 君·臣·佐·使法을 적용케 하였으며 막연하게 이약치약을 複합시킴을 엄금하고 있다.

그 基礎理論이 綜合的인 自然界의 原理에 立脚하였기 때문에 질병의 요법이나 藥물의 사용에 있어서도 종합적인 방법은 진행하고 있어 엄연한 體系를 이루고 있다 하겠다.